

경계 없는 공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과연 '스페이스'인가?

장승연(전 아트인컬처 편집장)

빈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2012년 문을 연 이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발자취를 지켜봐온 지난 과정에서 종종 떠올렸던 것이다. 그 질문이란 곧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과연 '스페이스'인가?” 여기서 빈칸은 동시대 미술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지칭하는 다양한 형용사나 수식어 혹은 명사를 위한 자리다. 이 빈칸에 ‘대안’ ‘젊은’ ‘비영리/영리’ ‘아티스트런’ 등 다양한 표현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이곳을 찾아온 관객과 작가는 물론 무수한 미술인들의 몫일 것이다.

나 역시 윌링앤딜링이 경리단길 초입 건물의 지하 1층에 막 문을 열었던 때부터 이 공간에 드나들었던 관객 중 한 명이지만, 막상 이 빈칸 안에 넣을 만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지 사실 여전히 가늠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윌링앤딜링이 특정한 ‘정체성’(이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미술계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비어있음 자체가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이 질문에 접근해 보려 한다.

정체(성) 없음 vs. 정체 많음

미술 현장에서 ‘전시 공간’이란 하나의 제도인 동시에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물리적 조건이다. 동시대 미술의 형식이 지속적으로 바뀌며 확장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전시 공간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 예로 한국 미술현장의 지난 시간들은 전시 공간들의 흐름을 가지고도 또 다른 서사를 꾸릴 수 있다. 최근 한국 대안공간들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벌이거나 앞두고 있다. ‘대안공간 20주년’이라는 의미는 단지 개별 공간들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급변하던 한국미술계의 한 줄기를 견인한 동력 중 하나였다. 단지 20년이라는 시간은 1990년대 말 등장한 실험적 공간들을 역사의 일부로 만들었고(물론 여전히 활동하는 공간도 있다), 대안공간이라는 명칭 또한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이미 지나간 것이 되었다. 이후 2013년경부터 소나기처럼 미술 현장에 쏟아져 내린 신생공간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약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짧지만 강력하게, 신생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젊은 미술인들은 미술계를 향해 당당히 발언하며 존재감을 남겼다. 아마도 먼 훗날 우리는 2010년대의 한국미술사 속에 신생공간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공통점을 꼽는다면, 대안공간이나 신생공간의 경우는 다수의 공간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열며 집단적인 카테고리를 이름으로써 시간/역사의 맥락에 결부됐고, 때문에 그 존재 의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개별성의 공간들도 분명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엔 아마 윌링앤딜링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넣자면 윌링앤딜링은 조금 골치 아픈 공간이라는 말이다. 미술관, 갤러리, 대안, 신생, 아티스트런, 어디에도 강력히 속하지 않으며 신진작가부터 중견작가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 비영리 공간이지만 영리적 성격의 행사와 이벤트도 종종 기획하는 공간.(물론 윌링앤

딜링이 개최했던 옥션, 아트페어를 응용한 행사들은 기획력과 작가 프로모션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과격한 급진성보다는 보편적 포용력이 느껴지는 공간. 이렇게 본다면 앞서 언급한 '정체(성) 없음'은 '정체 많음'과 동의어일 뿐이다. 살짝 관점을 달리하면 이 둘은 결국 한 곳 차이일 수도 있다. 단지 어떤 카테고리 안에 꼭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관습적인 시선으로 볼 때만 골치가 아플 뿐이다.

유연한 시스템/유연한 전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홈페이지에는 다음의 짧은 소개 문구가 실려 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Space Willing N Dealing)은 '윌링(willing)'하는 것을 '딜링(dealing)'한다. 즉 원하는 것을 다루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미술 시스템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립된 공간이며 보다 유연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그 목적을 둔다." 이 문장에서 "유연한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지금 꽤 유용하게 느껴진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기엔 다소 애매한 표현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펼쳐진 전시 중에서도 몇몇 전시들은 나의 기억 속에 꽤 '유연한 전시'로 분명 남아 있다. 미술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작업적 역량을 충분히 선보여온 작가들이 윌링앤딜링에서 만큼은 한번 쯤 부담 없이 시도해보고 싶었던 기획이나 작업을 시도하는 듯한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었다면 나만의 과대 해석일까.

2013년 열린 김수영 작가의 개인전 <인벤션(Invention)>(2013. 5. 28~6. 16)에는 그의 대표작인 건물의 단면을 그린 회화가 전혀 전시되지 않았다. 당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윌링앤딜링의 다듬어지지 않은 분위기와 매우 어울리게, 작가는 은반사 필름과 목탄 드로잉으로 공간 벽을 채우고 그 사이의 반사/투과/비쳐지는 이미지와 관객의 상호 작용에 주목했다. 이 전시는 내가 본 김수영 작가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치' 작업으로 기억한다. 사진과 영상 작업으로 한창 활동 중이던 장민승 작가는 2014년 윌링앤딜링에서 열린 개인전 <가구팔자-家具八字>(2014. 3. 14~4. 3)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가구로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대학에서 조소과를 전공하여 테이블을 비롯한 가구 제작에 능숙하다고 들어왔던 그의 손재주를 처음 마주했던 전시였고, 한편으로는 그가 제작한 가구들을 판매하는 쇼케이스이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이수경 작가가 개인전 <고향으로 데려다주오(Take me home country roads)>(2014. 12. 16~2015. 1. 4)에서 연출했던 크리스마스 트리 덕분에 그해 윌링앤딜링의 연말은 더욱 화려했다. '산해경(山海經)'에서 발췌한 중국 전설의 산인 '곤륜산'에 관한 텍스트를 모티프로 한 작업으로, 금실자수 형식으로 수놓은 리본과 유리구슬로 장식한 <곤륜산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이 작업은 함께 전시된 기존 작업인 <순간이동 연습용 그림>과 <번역된 도자기>와 달리 그 뒤로도 다른 전시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었지만, 연말이라는 시간과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간이기에 가능했던 이수경 작가 특유의 유머와 재기 가득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윤가림 작가의 <세 가지 타입(Three types)>(2016. 4. 15~5. 5)전이 열리는 동안 윌링앤딜링에서는 늘 빵 냄새가 났다. 작가가 직접 공간에 제빵도구와 기계를 들여놓고 빵을 굽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다. 나 역시 작가가 어린이 놀이교구인 가베(Gabe)의 세 가지 타입의 모양을 기반으로 만든 기하학 형태의 가구에 앉아서, 작가가 직접 구운 세 가지 타입 모양의 빵을 먹으며 작품-공간-감각(미각, 후각)과 다양하게 접촉하고 경험해보는 참여형 전시를 함께 완성하는 한 명의 관객이 되었다.

전시기간 동안 매일 출근한 작가가 또 있었다. 듀오 작가 로와정은 개인전 <sunday is monday, monday is sunday>(2018. 5. 4~24) 내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공간 안에서 작품을 제작해 완성된 작품을 전시에 덧붙이고, 퍼포먼스, 만담, 옥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즉 매일매일 관람객은 전혀 다른 전시를 만나게 된 셈이다. 잠시 전시 소개글의 일부를 참고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작가에게 창작의 과정은 곧 전시라는 결과로 종결되곤 하는 것과 달리 로와정은 오히려 그 고정된 결과로부터 자유롭기를 시도했다. 이것은 과정이 곧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이다. 즉 로와정은 전시를 통해 “생산자로서의 작가인 동시에 곧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관객을 공동의 생산자에 위치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확장된 질문

앞선 전시들의 사례를 작가들의 ‘실험’이라고 단순히 지칭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연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부담이 조금 덜해진다.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간이란 작가들에게 마음 한편에 세워졌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프로젝트 B’를 시도해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분명 있었을 것이기에 앞선 전시와 작업들이 실행 가능했을 것이다. “작가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무언가와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flexible space which enables artists to try new thing and work freely)”이라는 홈페이지 속 취지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제 실현되었던 것이고, 거기서 비롯된 새로움은 관객들 각각의 감상과 경험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윌링앤딜링이 추구한 그 유연함의 결과로서, 앞서 언급한 ‘정체 많음’ 즉 빈칸과 그것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싶다. 햇수로 7년의 역사를 맞이한 윌링앤딜링의 수식어를 여전히 비워놓음으로써, 이 공간에 경계나 울타리는 두르지 말고 그 자체로 동시대 미술공간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 ‘동시대’라는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정확한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촌스러운 방식일 수도 있음을 느끼곤 한다. 동시대라는 현상이란 곧 어떤 카테고리 중심화되기를 벗어나는 탈중심화된 무수한 성좌들로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윌링앤딜링을 수식할 빈칸을 꼭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진다. 지금 윌링앤딜링이 활동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빈칸은 여전히 비워둘 필요가 있다. 이제 좀 더 시각을 확장해서 이 빈칸의 역할을 동시대 미술 공간의 확장성과 다양성에 대한 논의로 연결시켜보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빈칸을 공간의 이름에다 하나 더 만들어보면 질문은 완성된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과연 ‘스페이스’인가?”